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11월 10일 (금)  
--(음력 9월 27일)--  
Пятница  
10 ноября 2023 г.  
№ 43 (1206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10일은 러시아 연방 내무국 직원 및 경찰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단신

### 2023년 초부터 사할린주에 15척 난파선 폐처리

네벨스크 항구 해역 부근 난파선 처리 작업이 완료되었다.

전문가들이 선박을 해안가로 끌어내 차후 개조를 위해 군 수색함의 잔해를 넘겨 주었다.

올해 사할린 지역에서 15척의 난파선이 폐처리됐다고 전해졌다.

난파선은 바다사자들의 서식지가 보이는 네벨스크 전망대와 인접한 해역에 위치해 있었다. 올해 지역 교통부는 침몰한 난파선 폐처리에 따른 작업량을 상당히 증가시켰다. 2022년에는 사할린 해변의 4개 난파선을 제거했다면, 올해는 15척에 이른다. 올 연말까지는 26척의 난파선의 잔해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이 주요 작업이 세웨로 쿠릴스크와 코르사코프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난파선 폐처리 작업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국내 전문가들의 지원으로 '대대적인 정비' 대규모 연방기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 사할린에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건축, 실제 단계에 착수

'돔 오피체로브(장교 회관)'가 위치해 있던 자리에 사할린테크 과학교육단지 건축을 위한 건설 현장에 기초공사로 첫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이뤄졌다. 이는 모든 건축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이는 준비단계에서 실제 공사단계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건설현장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사할린을 포함해 러시아에 세계적 규모의 대학 캠퍼스 건설에 대한 정책을 채택했다. 국민 단결의 날에 중차대한 일의 시작으로 우리는 미래 과학-교육 단지 기초공사에 첫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했다. 건설자들과 지역 정부와 학자 및 사업가 등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큰 규모의 기획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첨단 캠퍼스는 사할린 지역에 필요하다. 이는 학교 졸업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좋은 일자리를 얻고, 나아가 기업인들은 최첨단 과학과 상호협력하며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건축 현장의 작업은 일정상 6일을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대규모 건설이 진행되는 대형 국가사업이 기한 안에 성취되도록 우리는 모든 조건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과학교육단지에는 강의실, 과학분석연구소, 근본적인 사업과제를 해결할 탐구조사 및 개발센터가 자리잡게 된다. 식물원과 공동으로 연구대상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공 장소로서 공개된 온실이 조성된다. 또한 캠퍼스에는 공식 행사를 위한 공간을 비롯해 전시장, 도서관, 체육관, 카페도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의 총 면적은 8,8000m<sup>2</sup> 이 넘는다.

기초공사와 함께 미래 사할린테크 캠퍼스의 과학적 기반 조성에 따른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

방면의 핵심 분야는 석유가스화학, 수중생물공학, 인공지능, 신생에너지이다. 사할린의 주요 대학의 기존 건물에서는 현재 과학 연구소를 재편성하고, 새로운 과학연구소를 조성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사마르다크 사할린국립대 총장 대행은 "캠퍼스가 건설되는 동안 우리에게 새로운 과학 방면을 형성하기 위한 얼마간의 기간이 있다. 이 방면들은 기업의 요구와 지역의 우선순위로 결정된다. 우리는 탁상 과학을 연구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는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사할린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길 원한다. 주지사는 대학 학자위원회와 만남에서 수산업 단지가 직면한 과제를 지적했는데 우리는 현재 해양양식 생명공학 단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에 이것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대학교에는 전기화학 장치 청년연구소가 다시 가동되며, 스페르반크와 공동으로 인공지능센터가 설립되고, 화학 및 IT(정보기술)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또한 사할린테크 미래 캠퍼스에 들어설 또 하나의 방면은 기후와 에너지 과제이다. 이 방면은 지역을 위해서나 국가 전체를 위한 전략적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대 아시아 연구센터가 만들어지고,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의 경제와 문화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역량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과학교육 캠퍼스 건설은 1500 명이 이용할 전략적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프로스펙트 포베다 거리에 있는 이 시설의 기초공사에 따른 작업이 10월 말에 시작되었고, '대학생의 도시' 준공은 2025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과학교육 단지'는 2026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 작업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시행되는 '과학과 대학들'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건설된다.

## 사할린주 인도와 보건 분야에서 협력 합의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수반한 사할린 주정부 대표단이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의 32개 회사와 두 개 대학과의 사업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 해외 협력자들은 건설, 교통, 물류, 관광, 채굴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만남에서는 의료개발이 주요 의제가 되었다. 사할린 주 정부는 특히 사할린주와 인도의 제약 회사들과 직접적 협력 구축에 대해 해외 협력자들과 협약을 맺었다. 인도 뉴델리에서 사할린의 대표단은 약품과 의약품에 대한 원료를 제조하고, 포장, 판매하는 회사들과 일련의 만남을 가졌다. 대러제재의 여건에서도 약품 공급 문제는 특히 현실적 절박함을 안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유럽 공동체 국가들의 제재에 반하여 러시아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소통을 있고, 이들과 역사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인도는 이런 국가들 중 하나다. 우리는 인도 정부와 기업과 함께 사할린주와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 강화 문제를 논의했다. 인도는 의약품 생

산에 있어서는 세계적 선두국가 중 하나다. 그 의약품들 중에는 러시아의 의약품 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도 의약품 회사와의 협력은 의약품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격정책을 가진 몇몇 생산국과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사할린에서는 의약품 생산시설 건립 문제가 연구 중으로 의약품, 소비성 의료용품, 단순한 의료용 장비 생산을 위한 것이다. 사할린 주지사는 인도의 숙련된 기술과 특허를 이용해 사할린 지역에서 의료용 의약품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따라서 약품의 가격도 해외서 공급되는 약품들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전망 높은 기획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인도 기업과의 첫 협약에 이르렀다. 조만간 해외 협력업체들이 사할린주를 담당할 예정이며 의약품 생산시설 건립을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에 대한 계획은 협약에 따라 정착시킬 계획이다.

###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 일본 은행에 사할린한인들의 저축금 문제로 강연



11월 3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한인 역사적 정의회복을 위한 토론 마당>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 주 향토박물관 유리 알린 관장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 주제는 <토요하라 일본 우체국 은행에 있는 사할린한인들의 저축금: 문제해결의 가능성>이었다.

알린 강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 은행에 있는 사할린 한인들의 저축금 보상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어려운 점은 은행 문서가 일방적으로 파괴되었고 또 다른 편으로 개인 저금통장을 확인하는 문서도 손실된 데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과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해결책을 실제적인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역사학자로서 알린 관장은 1945-1998년간 사할린 지역 금융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여러 문서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시 사할린 한인들이 일본 은행에 자신의 봉급을 맡기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첫 기사는 1991년에, 두 번째 기사는 2000년에 보도되었다.

사할린 한인들의 일본 은행 저축금에 관한 1991년에 보도된 첫 번째 기사에서는 이때 잃

어버린 저축금 보상 문제가 국가 차원으로 처음 제기되었고, 2000년에 발표된 두 번째 기사는 일본과 러시아 측과의 교류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유리 알린 관장은 일본 체신부 저축국 지점에 있는 예금 등록 장부 유지와 관련하여 소련 외무부와 일본 대사관 사이의 주고받은 서신에서 나온 일부 문서도 소개하였다.

강연 주제에 대한 논의에는 역사적 정의회복을 위한 사할린 한인단체들의 노력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그리고 강연에서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역사적 정의회복을 위한 토론 마당> 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 학자들의 세 차례 발표가 이미 진행된 가운데 주최 측은 11월 17일 오후 3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다음 모임에 사할린 한인문제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한다. 이날 온라인으로도 진행될 강연의 주제는 <1945년 이후 사할린한인에 대한 일본의 정책>이고 강사는 홋카이도대학 철학박사 스베틀라나 세르게예브나 파이차체 부교수다.

(취재: 배순신 본사 기자)

# 리 알렉산드르 감독의 '인도하는 하늘'

지난 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사할린 인형극장에서 <예술의 밤> 전 러시아 행사 일환으로 '인도하는 하늘'이란 초연이 있었다. 이 연극은 사할린주 민족창작센터의 리 알렉산드르 감독이 관객이 참여하는 몰입형 연극으로 연출했다.

검은 의상을 한 <알렉산드르 리> 아마추어 극단의 배우들은 이날 무대에 4개 한민족 동화를 소개했다. 그중에는 한민족, 버마, 나나이, 아르메니아 동화가 있었다.

모든 즐거움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모든 동화를 소개하기보다는 그저 관중으로서 소감을 전하고 싶다.

일단 모든 동화는 감독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전하고 있다. 좋은 것은 나쁜 것을 이겨내고, 사랑과 친절을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리 알렉산드르 감독은 이를 전하는 과정이 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루하지 않게 무엇보다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썼다. 그리고 소품도 아주 간단하게 쓰고 큰 무대 장식도 거의 안했다.

4개 동화 중에는 '인도하는 하늘'이란 제목은 없다. 이견 리 감독이 꿈에서 본 것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는 그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우리 운명을 감시하고, 누군가를 인도하고 있다. 하늘을 보고 징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은 길도 알려준다.

'인도하는 하늘'이라는 작품의 무대는 간단하고 단순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이 얼마나 깊고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느낄 수 있다. 첫 번째 동화를 예로 들어 보겠다. 동정적인 설득과 노골적인 조롱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신부만큼이나 못생긴 신부에게도 많은 돈을



지불한 신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으며, 모든 소녀는 소두 마리가 아닌 신부 가적인 소 열 마리로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리 알렉산드르 감독의 마음에 출연진이 공감했다. 신나는 이들의 연기가 이날 참 좋았고 무엇보다 관객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연극에 사용하는 음향과 음악에도 감독이 많이 노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리랑 등, 한민족 멜로디가 많이 들어가기도 했다. 그리고 춤동작도 적지 않았다.

부모와 자녀, 누구나 볼 만한 작품으로 추천한다.

(배순신 본사 기자)

# 이 모 저 모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로스트> 전시회 개최

11월 5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동미술학교 전시회 강당에서 <시간과 공간에서>과정의 일환으로 <로스트> 전시회가 개최됐다.

"전시 기획은 사할린주 회화의 형성 단계와 발전 단계를 밝히며,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소장품과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7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사할린주 미술 박물관 측이 전했다.

사할린주에서는 2023년부터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시행되는 <사할린의 화가들> 전략 기획이 실시되고 있다. <로스트> 전시회는 2023년 12월 중순까지 열리며 매주 월요일 -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장한다. 입장은 무료이며, 전시회 장소는 워그잘나야 거리 5a이고, 문의는 전화 72-37-38로.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РОСТ»

5 ноября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дет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РОСТ» цикла «Во времени и пространстве».

- Выставочный проект раскрывает этапы становления и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и представляет около 70 произведений из фонд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и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ахалин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С 2023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ие художники»,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ыставка «РОСТ» будет открыта до середины декабря 2023 года. Она работает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пятницу с 9.00 до 19.00, по субботам с 11.00 до 19.00. Вход на выставку свободный. Посетителей ждут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Вокзальная 5а. По всем вопросам можно зво-

нить по телефону: 72-37-38.

## 사할린에 대한 영화, 특별상 수상

모스크바 전 러시아 박람회장에서 열린 <러시아> 국제 포럼-전시회에서 <극동-모험의 땅> 경연의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극동-모험의 땅> 경연대회에 극동의 독특한 장소에 따른 여행을 다룬 창작영화들이 참가했다. 4개 부문에서 경연 참가자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2개의 특별상을 두고 경쟁이 치열했다. 경연에 201편의 작품이 출전했고, 사할린에서는 55개 작품이 출전했다. 선정된 상위 목록에 사할린의 작품 6편이 결승에 올랐다.

11월4일(토)에 전 러시아 박람회장에서 우승자와 수상자 모두를 발표했다.

사할린 지역을 주제로 한 영화가 <무한한 가능성>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단편 영화를 출품한 모스크바 주민인 예브게니 이와노프는 토니노-아니와 반도를 따라 장애아동들을 위해 고아원을 졸업한 청년들의 6일간 트래킹의 모습과 어려움을 영상에 담았다.

경연의 결과에 따라 극동 지역 여행의 디지털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 Фильм о Сахалине получил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форуме «Россия», проходящей на ВДНХ, подвели итоги конкурс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 Sakh.online.

В конкурсе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участвовали авторы фильмов о путешествиях по уникальным мест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нкурсант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четырех номинациях, а также боролись за два специальных приза. На конкурс поступил 201 фильм, в том числе 55 – с Сахалина. В шорт-листе оказались шесть финалистов из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4 ноября на ВДНХ назвали всех победителей и лауреатов. Фильм, посвященный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выиграл в специальной номинации «Неограниче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В своей короткометражной ленте москвич Евгений Иванов показал краски и трудности шестидневного похода, совершенного выпускниками детских

домов для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вдоль Тонино-Анив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создадут интерактивную карту путешеств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общает издание.

##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들 전시

<예술을 위해 준비된 길은 없다...> 전시회가 11월10일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주요 전시 작품은 앤디 워홀 미국 미술가의 원작 판화라고 박물관 측이 전했다. 전시회에서는 앤디 워홀의 판화, 포스터, 회화, 그래픽, 사진, 조형물 등, 니키타 투르바로브의 개인 소장품과 사할린주 미술 박물관의 수집품 중 70점 이상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회 관람객들은 소비에트-러시아 인상과 화가인 아르 부흐와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극장 미술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포스터 작가인 세문 알라드팔로브의 작품도 보게 된다. 또한 파블로 피카소, 르로이 네이만, 니콜라스 크루체니의 원본 판화, 러시아의 전위 예술가 알렉산드르 로드첸코와 나제즈다 호다세비츠-레제의 작품들도 전시된다.

"전시회의 중심되는 작품은 미국의 화가이자 프로듀서, 디자이너, 작가, 잡지 발행인, 영화감독인 앤디 워홀의 원작에서 가져온 판화이다. 특히 미국의 블루즈와 디스코 음악의 작곡가이자 가수인 도나 썬머의 1980년대 '열정(마주보는 얼굴)' 원작 석판화가 흥미롭다."고 미술관 측이 전했다.

## Работы Энди Уорхола впервые выставят на Сахалине

Выставка «К искусству нет готового пути...» откроется 10 но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Ее центральными экспонатами станут эстампы с оригинальных работ американ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Энди Уорхола, сообщили в музее. Всего на выставк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о более 70-ти работ из частной коллекции Никиты Турубарова и фонд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Это эстампы, плакаты, живопись, графика, фотографии и скульптурные формы.

(8면에 계속)

# 카자흐스탄, 모스크바 및 사할린 대학 대표 한 자리에 모여

## 사할린국립대, '아시아와의 대화' 국제학교 프로그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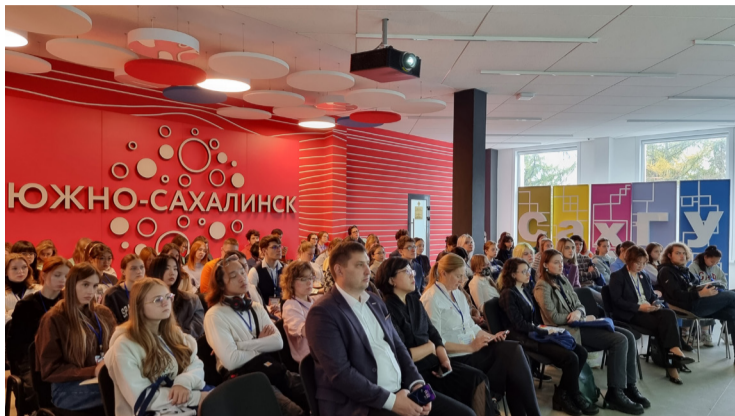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사할린국립 대학교에서 러시아 고등교육과학부와 극 동 및 북극 개발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우선순위 2030. 극동지역 국가기회 실현'으로 '아시아와의 대화' 동계 국제학교를 진행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국제학교 프로그램은 사할린국립대의 주요 교수와 초빙 강사들의 강연, 활동교실과 견학, 문화 행사들로 구성되었다.

주최 측(사할린국립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국제학교 참가자로는 사할린 학교 고등학생 44명과 카자흐스탄, 모스크바, 사할린 대학 학생 48명이다. 그중 아블라이 한 카자흐 국제관계학 및 세계언어학 대학에서 한 넬리 한국어 교수와 함께 학생 4명, 모스크바 시립사범대학교의 외국어대학에서 페자 니나 블라드레나 일본어 학과장과 학생 4명과 모스크바 국립 언어대학교에서는 폰크라토와 예브게니아 교수와 학생 2명이 참가했다.

지난 7일(화) 오후 5시 프로그램 개막식에서 사할린국립대 알렉산드르 사마르다크 총장 대행은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면 아시아인과 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을 현대 아시아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싶고, 문화 간 소통의 성장과 발전의 거점이 될 청소년 전문 연구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대학에 여러 나라의 대표들을 초빙하여 진정한 국제포럼이 열렸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라고 하였다.

행사 참가자들을 환영한 사할린주 투자정책부 와실리 그루제브는 "우리는 러시아 지역 중 아마도 가장 아시아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시아는 아름답고 선율적인 단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라며 "한때 러시아는 표트르 1세(대제) 덕분에 현재 유럽 개발(서구화 정책)이라고 불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의 상징인 쌍두독수리에게는 두 개의 머리가 있는데 하나가 서쪽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은 최고가 아닙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머리가 현재 성장할 때이며, 강화시킬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들 외에도 중앙아시아, 이란, 인도 등 국가들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그들과의 관계 수립에 있어 첫 번째 진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번에 개설된 국제학교는 러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간의 통합 프로세스 및 협력, 현대 교육 공간에서 협력 전망, 동양 국가와의 국제 관계의 인도주의적 측면, 문화 차이 관리 관행 및 의사 소통 구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최신 주제를 펼쳤다.

필자는 로모노소브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립 대학 안드레이 벨첸코 부학장이 '새로운 아시아' 강연, 카자흐 대학교의 한 넬리 교수의 '카자흐스탄의 교육 공간에서 민족문화 간 의사소통'과 동 대학 한국어교육 현황에 대한 특강을 아주 재미있게 청취하였다. 전문 교수들의 강연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고 많은 질문을 던지게 했다.

이번 '아시아와의 대화' 국제학교 프로그램의 담당 진행자는 사할린국립대학교의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비라)이다. 주관 측에서는 학교 프로그램으로서 요리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썼다. 4일 동안 참가자들은 동양 요리의 주요리(중국, 한국, 사할린 한인 요리)를 맛보고 요리 활동교실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지난 8일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직접 한국의 전통 음식 '잡채'를 만들며 맛보았다.

유익한 시간을 보낸 국제학교 참가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 많은 의견을 나누는 데에 대해 매우 만족해 했다.

(배순신 본사 기자)

# < 2023 - 사할린의 품질 > 지역 식품박람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다

지난 주에 '시티몰' 쇼펜터 전시장에서 박람회가 열렸다. 누구든 와서 사할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식품을 무료로 맛볼 수 있고, 사할린의 식품업체들의 지도자와 공정기술자들과도 교류할 수 있었으며, 생산공장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이 박람회를 사할린주 농산업 및 무역부 인나 파블렌코 장관이 개막했다.

"식품 생산기업 박람회는 2004년부터 사할린에서 개최되고 있다. 그간 사할린에 출하된 식품 생산량은 4.5배나 증가했다. 이는 국가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부터 러시아 대통령에 의한 식품안전성 지침이 발령돼 이 지침을 따라 움직이며 우리는 최상의 결과물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 모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며,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랍니다."라고 농산업 및 무역부 장관이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올해는 '사할린의 품질' 관람-경연은 4단계로 진행됐다. 첫 단계는 지역 생산제품의 감독 구매가 진행됐고, 다음 분보기제품의 품질을 시식협회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경영위원회 회의에서 우승자들을 선정했다. 식품 평가 전문가들은 제빵, 제과, 유제품, 생선제품, 사할린 10개 지역에서 생산한 34개 식품업체들의 콜바사(훈제 소세지)를 평가했다. 전시-경연대회의 마지막 단계로서 지역의 서민적 소비제품 전람회를 열었다. 육류에서부터 제과에 이르기까지 가장 다양한 식품의 신제품들을 사할린 지역의 24개 식품 생산업체들이 전시했다. 관람-경연대회의 총결산으로

〈1등급 정제 밀가루로 만든 제빵〉 부문과 〈빚금 바톤〉 부문에서 최우수 생산자는 '홈스크 제빵공장'이 선정됐다. 제과 부문에서는 예상대로 '콘지페르스카야 라브카' 제과점이 1위로 선정됐다. 우수 생산품의 명칭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돼지고기 훈제 콜바사와 익힌 콜바사 '독토르스카야'의 최우수 생산업체는 '사할린 육류가공공장 3T-2' 회사가 차지했다. 〈돼지고기 소세지〉 부문에서는 '콜바스니 페흐(소세지 생산공장) '사할린스키'가 1위 했다. 개인 사업가인 도브리 게르만 블라디미로위치는 '라젠카(발효 유제품)' 우수 생산자로 우승을 차지했다. '스메타나, 20%밀리줄' 부문에서는 '그린 아그로 사할린' 유제품 생산업체가 우승했고, 연어알 생산에서는 '쿠릴스키 베레그'회사가 우승했다. 경연의 수상자들은 〈러시아 100대 우수 상품〉 전국경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며, 자체 생산품 포장에는 제품을 홍보하는 '사할린 카체스트 위(사할린의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권리가 주어진다.

식품 박람회에는 효과적인 상호협력과 현장 계약체결의 기회를 위한 특별사업 구역이 마련됐다. 그 결과 식품생산업체와 지역 식품 공급업체, 일반 요식업체들 간에 10건 이상의 계약이 성사됐다.

## 사할린한국교육원 30주년 맞아

# <꿈에도 못잊을 사할린한국교육원>

김 주 환(사할린한국교육원 제8대 원장 : 2017.03.01.~2020.02.29.)

2017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순백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할린에 첫 발을 내디뎠다.

제7대 장왕장 원장님은 제가 사할린에 도착하기 전에 서울로 귀국하셔서, 나는 업무 인수 인계를 서울에서 구두로 진행하고 부임하였다.

그래서 업무 파악에 대한 조금한 마음이 들어, 메가 팔라스 호텔에 여장을 풀고 바로 교육원을 찾아 나섰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길을 푹푹 빠져가며 간신히 한인문화센터에 위치한 교육원에 다다랐다. 그렇게 사할린의 첫날을 보냈다.

27일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황명희 소장님께 부임 인사를 드리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전임 원장님께 현장에서 업무를 인수받지 못하다 보니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교육원의 산 증인이신 김순자 실장님이 정년 퇴임을 하셨지만 적당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3개월간 계약제 근무를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다.

매년 상·하반기 한국어교실(초급, 중급반, 토픽대비반), 한국문화교실(요리, 무용, 가요)등을 운영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실시하고, 사할린국립대학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협업하며, 한국어 채택학교와 한글학교를 지원해 한국어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7년의 가장 큰 규모의 행사는 8월 20일 일요일 16:00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탈리치 비즈니스센터 롱그레스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광복 및 러시아 승전 72주년, 한-러 수교 27주년 기념 2017 사할린 한-러 우호 축제이다. 참석자들은 한-러 양측 주요인사 등 약 700여 명이였다.

주재지에서 사할린주 문화·기록부 장관(사마린), 문화정책부장(라브리), 러 외교부 사할린 대표(노소프), 일본 총영사(류이치 히라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문화부 차장(졸로투히나), 사할린주립미술관 부관장(말코바), 사할린주다민족협회장(아코판), 사할린인문과학기술대 부총장(김영순), 동포 및 교민은 사할린주한인회 회장(박순옥), 사할린주한인노인회 회장(김홍지), 각 지방한인회장 및 사할린한국인회장(현덕수), 사할린선교사협의회, 새고려신문사장(배순신), 우리말방송국장(김춘자) 등, 한국공연단 및 방문단은 김덕수사물놀이패 '한울림'(김덕수 교수 외 6명), 국립전통예술학교(인술교사 및 학생 21명), 성악가(이연성, 박성희), 부산시 합창단팀 '발라스트 스트릿'(서덕구 단장 외 5명) 등 36명이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2017년부터 청년 한국어 예비교원의 초기 경력 축적 및 현장 실습 지

원과 재외 동포 교육 기관 교원의 체계적인 현장 실습 지원을 위해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 파견 사업(카자흐스탄, 러시아)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원은 2017년부터 3년간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7년에는 러시아 사할린 사업을 인하대학교에서 수탁받아 9월 2일 토요일부터 10월 28일 토요일까지 2개월간 11명이 교육원, 한국어 채택 학교, 한글학교 등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업을 진행하였다. 2018년과 2019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었다.

2018년과 19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사업을 수탁받아 교육원과 협력해 사업을 잘 마무리했다. 2019년 3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며 쓴 글을 소개합니다.

<2019년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사할린) 실습 지원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했던 모든분들이 과정에는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결과에서는 잘 견디고 해냈다는 뿌듯함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원거리에 있는 우글레고르스크 한글학교, 홈스크 만천 한글학교에 실습하는 예비 교원들이 이동 거리가 멀고,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 어려움도 있었지만, 2박 3일 수업을 마치고 떠날 때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을 뒤로하고 올 때는 정말 아쉬움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참관과 특별반 수업, 사할린국립대학교 참관과 합동 수업, 문화 체험, 한국어 채택학교(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동양 김나지아, 제2김나지아, 꼬르샤코프시 제2, 제4학교)에서의 참관과 수업, 한글학교에서의 참관과 수업에서 한국어 교사로서의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할린주립 박물관, 에트노스아 동예술학교 학생들, 꼬르샤코프시 문화 축제 등에서 한국문화 체험 마스터 클래스 부스를 운영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때 러시아인들과 한인들이 앞의 기쁨을 환한 미소로 나타낼 때 한국인의 자긍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사할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2020년에는 보다 더 알차고 유익한 실습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사할린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학습하며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주었다.

(다음 호에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з фондов СОХМ

## Живопись мунинхва

Творческий метод восточного художника подразумевает путь в «10 000 ли». Ха Чоль Ген, обращаясь к знакомым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 родной природы, создает целые пейзажные серии. Художник является приверженцем классиче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традиции, но его изобразительная система содержит в себе нечто не свой-



Ха Чоль Ген (1953 г.р.)  
Селение на берегу реки. 2016 г.  
Бумага, тушь, водяные краски. 69x91;  
76x101  
Поступление: дар автора, 2016  
КП-10237 Ж/в-1441

ственное традиционному изображению, что можно определить, как зашифрованное, стилистически обоснованно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е начало. Аналитические хитросплетения в рисунке скал и изобразительная двусмысленность природных объектов сообщают изображенной им природе скрытый сакральный замысел. Подробная, импрессионистически пульсирующая,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ость сюжетов художника передает животрепещущий характер изменчивой природы.

В растворенной бесконечности бел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композиции природа в работе «Селение на берегу реки» (2016)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ечной доминирующей стихией, где человек затерян в изгибах горного ландшафта. Одновременно композиционное построение лишено классически строгой логики приоритетов и представлено полноправным соседством отдельных деталей сюжета (сосна, скалы, маяк и храм) в объединяющем и разъединяющем пространстве. Однородность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решения (интенсивность письма, детализация) приближает отдельные фрагменты композиции к общей плоскости изображения, придавая ему условно-декоративный европейский характер.

Хай Ок Дя, гл.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ОХМ

## Сахалинцы успешно выступили на Чемпионате России по тхэквондо МФТ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завершились Чемпионат и Первенство России по тхэквондо МФТ.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3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42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по всем возрастным группам и категориям.

На Чемпионате и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по тхэквондо МФТ отлично выступи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сахалинских тренеров Романова В.В. и Вячеслава Ким. Так Голдина Ульяна завоевала две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по спаррингу и силе удара. Мохначева Диана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в спарринге и бронзовую медаль в силе уда-

ра. Ковалев Кирилл завоевал бронзовую медаль в спарринге и Аруева Варвара стала третьей в разделе специальной технике тхэквондо. Гончарук Михаил стал первым среди мужчин. А Вячеслав Ким (село Чех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оевал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в категории «сила удара» среди ветеранов. Гончарук Михаил выполнил нормати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России. Молодцы!, - поделился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МФТ Ан Сухаги.

Наш корр.  
Фото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МФТ

## О проблеме вклад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японском банке Тоёхары

3 ноябр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искуссионная площадка по вопросам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очередная лек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ученых.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рий Алин выступил с темой «Вклад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очтовом банке Тоёхары: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просы компенсации вклад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азмещенных в японских банках, остаются одними из наиболее проблемных. Сложность заключается как в утрате, в том числе и в результате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значитель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банков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так и документов, подтверждающих личные вклады, с другой. Сегодня наша задача – привлечь к этой проблеме внимание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и перевести ее решение в практическую плоскость», — рассказал Юрий Алин.

Как историк Юрий Алин вплотную занимался темой истории банковского дел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1945–1998 годах. И, конечно же, в ход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толкнулся с темой вкладов корейцев и японцев в японских банках.

Перв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ная вклада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японских банках,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в 1991 году, когда впервые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был поднят вопрос о компенсации потерянных вкладов. Вторая статья — в 2000 году по итогам работ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японской и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



Юрий Алин показал некоторые документы из переписки МИД СССР и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по поводу сохранности регистрационных книг вкладов, находящихся в филиале сберегатель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чтовой связи.

Во время обсуждения темы лекции были затронуты вопросы усил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состоялась оживленная дискуссия, в ка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двигаться.

Напомним, что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искуссионная площадка по вопросам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стоялось уже три выступ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ученых.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глашают на очередную встречу 17 ноября в 15.00 в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на пройдет в формате офлайн-онлайн. Лектор – Пайчадзе Светлана Сергеевна, доктор философии, доцент Хоккай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ыступит с темой «Политика Япони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после 1945 г.».

Виктория БЯ

## «Поводырное небо» Александра ЛИ

«Ночь искусств - 2023» в Сахалинском театре кукол выдалась сказочной. Флагманом ее стала премьера иммерсивного спектакля «Поводырное небо» (режиссер-постановщик Александр Ли).

На подмостках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где любят и умеют использовать технику «черного кабинета», монохромный пришелец смотрелся вполне органично. Первая мысль при взгляде на сцену, тонущую во мгле: да эта история коррелируется с библейским мифом о сотворении мира. Земля - читай сцена - была безлика и пуста, тьма была над бездной. А потом от черного фона отделились люди в черном, возникли свет, слово, музыка, движение. А потом из первоэлементов сложилась жизнь, ее энергия, смысл, правила, традиции. В дальнейшем догадка подтверждает структура постановки - книга сказок, отобранных режиссером из мировой копилки, скреплена эпиграфами-цитатами из Ветхого завета. Библейские зачины к сказке читает отдельный человек - один из артистов, по очереди выныривающий из толпы людей в черном и примеряющий на себя ни много ни мало миссию демиурга.

Собственно, все очень просто. Однажды режиссер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Александр Ли перечитал кучу сказочных сюжетов, взял несколько - из сундуков корейского, армянского, нанайского и т. д.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Такой фольклорный винегрет сочетается с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м актерским составом (нивхи, русские, корейцы, буряты и др.). Взяли даже бирманскую сказку, правда, бирманцев среди артистов не наблюдается, но это пока и как знать...

Среди этих сказок точно не было «Поводырное небо»: название пришло к режиссеру во сне. Все мы живем не сами по себе - под небом, которое следит за нашей судьбой, кого-то направляет, кому-то подсказывает путь, если мы смотрим вверх и умеем прислушиваться к знакам. Впро-



чем, одна из возможных трактовок.

У всех народов сказки ровно об одном и том же - против всего плохого и за все хорошее. Важно, что режиссер заботит не только трансляция дорогих ему мыслей («любовь и доброта спасут мир»), но и то, как сделать этот процесс не то чтобы проще для усвоения, но зацепить зрителя. Зрителя, которог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валит с ног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шторм, а с другой - начитанность («в среднем по больнице») оставляет желать лучшего, и уж сказки после детства он перечитывать не будет, разве только для просвещения чада. Но в «Поводырное небо» краткость и простота сценического изложения оборачиваются глубиной и многозначностью смыслов, и все - про сегодня. Взять первую сказку - о женихе, заплатившем за некрасивую невесту столь же дорого, как и за красивую, несмотря на сочувственные уговоры и откровенные насмешки («да не дурак ли ты, братец?»). В ней прочтываются актуальные во все времена истины - что зорко только лишь сердце, что красота в глазах смотрящего, а всем девушкам надо ценить себя на десять коров калыма, а не две, и будет им и их половинкам счастье.

(Продолже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РК открывает 12 диппредствительств за рубежом

В 2024 году РК планирует открыть диппредствительства в 12 странах - Люксембурге, Литве, Маршалловых Островах, Ботсване, Суринаме, Словении, Сьерра-Леоне, Армении, Эстонии, Ямайке, Замбии и Грузии. В Ботсване и Суринаме будут открыты отделения посольства. На Ямайке и в Грузии существующие отделения будут повышены до уровня посольств. Открытие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года 12 новых диппредствительств происходит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Это связано с усиление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РК, стремлением поддержа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и компании за рубежом, одновременно способствуя выходу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бизнеса на рынки других стран.

## Инфицированные COVID-19 не будут изолированы при сдаче ЕГЭ

Карантинные правила, связанные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этом году будут существенно смягчены при сдаче ед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кзамена (ЕГЭ),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16 ноябр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Сеульском городском департаменте образования, участники экзамена с подтвержденным или предполагаемым диагнозом COVID-19 будут сдавать его в том же помещении, что и остальные. Однако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заражения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сдающим экзамен рекомендуется находиться в защитных масках. В этом году не будет также временных перегородок, которые ранее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во время обеденного перерыва. С 2020 по 2022 год для экзаменуемых с симптомам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и находящихся на самоизоляции были выделены отдельные аудитории. 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кзамен проводится каждый год в третий четверг ноября. В Сеуле его будут сдавать 107.423 человека, что на 658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KBS провела конкур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KBS приурочила к 50-летию своего основ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отборе финалистов, состоявшемся в октябр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62 кандидата из четырех стран. Это Франция – европейский центр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волны, а также США, Египет и Вьетнам, гд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чень популярен.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и профессий –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уровень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пособности в красноречии, умение петь и танцевать. Французская актриса, поклонница K-POP,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за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активно занималась и решила испытать счастье в этом конкурсе. 77-летний американец тоже активно изучае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чтобы поехать в Корею и общаться с корейцами. Все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интересуются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ей, культурой и кухней, все они проявил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таланты. Однако только восемь финалистов, по два от каждой страны,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билет на самолет в Сеул,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грандиозном финале. Все они находились в РК пять дней. Во время записи передачи, которая выходит в эфир 6 ноября, одна из двух американских финалисток сказала, что её интересует история Кореи, а также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ная волна. Финалистка из Египта обещала приложить ещё больше сил для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вшийся совместно с Фондом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мени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отмечающим своё 20-летие, подтвердил энтузиазм к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о всём мире.

## В РК отменён запрет на одноразовую посуду в ресторанах

7 но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логии РК отменило введённый ранее запрет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дноразовых бумажных стаканчиков в заведениях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Кроме того, на неопределённый срок продлён льготный период для введения запрета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ластиковых трубочек.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накануне истечения годового льготного периода для запрета на одноразовые бумажные стаканчики в ресторанах и кафе, а также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олиэтиленовых пакетов и пластиковой упаковки в магазинах. За нарушение запрет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льготного период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лся штраф до 3 млн вон (2300 долларов). Отмену запре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ъяснили сложностями,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мел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в условиях инфляции и высоких процентов ставок. Запрет на одноразовые стаканчики вынудит владельцев кафе наним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ерсонал и покупать посудомоечные машины. Кроме того, бумажные трубочки, альтернатива пластиковым, менее удобны для покупателей, а стоят в 2,5 раза дорож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нынешнее решение вызовет критику со стороны оппозиции как направленное на усиление поддержки избирателей в преддверии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Защитники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ыразили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реш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явив, что оно противоречит глобальным усилиям по сокращению пластиковых отходов.

(RKI)

## УЧЁНЫЕ ИЗ МОСКВЫ, АЛМА-АТЫ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ЧАСТВОВАЛИ В ШКОЛЕ «ДИАЛОГ С АЗИЕЙ»

7 ноября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зимняя школа «Диалог с Азией».

Её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ила в себя лекции ведущи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приглашенных спикеров,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мастер-классы, экскурсии,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Участниками школы стали 44 школьника и 48 студентов, в том числе 10 гостей из таких вузов, как Казах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 Абылай хана (г. Алма-Ата, Казахстан),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М.В. Ломоносова (г. Москва),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 Москва) и Мос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 Москва).

– Чтобы выстроить тесные отношения со странами Азии, нам нужны специалисты, способные говорить на одном языке с азиатами, и это не просто язык китайский, японский или корейский, а также знания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политики, понимания экономики,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ях, – подчеркнул и. о. ректора СахГУ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 Мы хотим позиционировать наш университет как центр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й Азии и планируем создать профильную молодежную лабораторию, которая станет точкой роста и развития межкультур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И надеюсь,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ы проведем настоящ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куда пригласи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ных стран.

В рамках школы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ряд актуальных тем, в том числе инте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и со странами АТР,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гуманитарные аспект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со странами Востока, практики управления культурными различиями и построения коммуникации.

– Мы, пожалуй, самый азиатский из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и для нас Азия – это не просто красивое, мелодичное слово, но часть нашей повседневности,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силий Грудев. – Так случилось, что Россия однажды сделала выбор в сторону того, что нынче называют европейским



развитием, спасибо за это Петру I. Но у нашего орла, как вы знаете, две головы, и у той, которая глядит на запад, сейчас не самые лучшие времена. А это значит, что у той головы, которая глядит на восток, время роста, время силы.

Министр напомнил, что помимо наших ближайших соседей, есть и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ран, Индия. Первые подвижки в налаживании отношений с ними уже есть.

Так, доктор наук, Ph.D, ассоциированный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перевода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Казах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ени Абылай хана (г. Алма-Ата) Нелли Хан приехала на Сахалин с докладами о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Казахстана и России, 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русских и казахов в Казахстане, сложности и путях их преодоления в изучении языков. Вместе с ней приехали и четверо студентов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двое из которых представили доклады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 лекцией «Гуманитарные аспект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со странами Востока» выступила заведующая кафедрой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 Институ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Мос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оцент,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Владлена Федянина. А приехавшие с ней студенты рассказали о своей кафедре, о японоведении в Москве и провели занятия для младших участников школы.

– Для меня большая честь участвовать в школе «Диалог с Азией»,

– говорит В. Федянина. – Я в первый раз на Сахалине, и я просто потрясена: это сгусток истории, сгусток российской и азиат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же, проведение школы именно здесь имеет огромный смысл и значение! Подобные встречи не только подводят итог накопленному опыту, но и вырабатывают перспективы на будущее, дают колоссальный творческий импульс. Мы подписываем договор между Московским городским педагогиче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планируем академические обмены студентов и, конечно, совмес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обные тому, что проходит сейчас.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й части программы школы: за четыре дня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уник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попробовать основные блюда восточной кухни (китайская, корейская,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йская кухни), а также пройт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традиционного блюда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чапчхэ».

По итогам освоения программы школы студенты получают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преподаватели – удостоверение о повыш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Кросс-культурные практики формирования функциональ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обучающихся в условиях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36 часов).

Международная школа «Диалог с Азией»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лидерства «Приоритет-2030.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ГУ)

##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3 ноября в Кызылорд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 До.

На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была большая делегация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уководств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Хон Бом До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У Вон Сиком, депутаты Парлам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Джу Гён (Народная сила), Ли Ён Бин и Дё О Соб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етеранов и патрио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главе с замминистра Юн Джон Дином. Казахстанскую сторону представляли члены АКК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Юрием Шином, Акимат кызылорд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ызылординский филиал АКК во главе с Денисом Паком.

На открытие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ришли старейшины и ветераны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Кызылорды.

Все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отметили важность данного события не только дл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о и для



развития и укрепления в дальнейшем казахстан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сточник: <https://ft.me/koryoilbo>

## «Поводырное небо» Александра Л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Пространство сказок оказывается на удивление благодатной почвой для диалога со взрослыми. Да, спектакль звучит специальным медитативным голосом - это, собственно, дань традиции «в гостях у сказки». Сохраняя архаическую подложку, артисты рассказывают совершенно жизненные истории - о любви, благородстве, свободе выбора, бедности и соблазнах, но в формате в приближении к фолк-стендапу. Тут четвертой стены не было и нет, почтенную публику обожают втягивать в действие, и она немедленно ведется на хитрые заманухи обаятельных артистов. То незадачливый жених бросается к ногам барышни в первом ряду и получает благосклонную улыбку, то бедный рыбак смиренно тащит в партер зрителю-богачу собранный хворост (листок бумаги с надписью «ХВОРОСТ»). И уже спонтанно, хотя и предсказуемо, игру подхватывают маленькие и самые честные зрители, не оставив без внимания гневные вопли: кто спер мою рыбку? - это не мы!

Каждая сказка цепляется «крючком»,

цитатой из Библии, и все вместе образуют цепочку задорных скетчей с колоритными музыкальными иллюстрациями.

Так, в корейской сказке нежный перезвон каягыма дополнили смешливой имитацией культового танца с веерами - только с пакетами из-под молока. А разыгрывая историю про лесных обитателей, забавлялись эпический нанайский батл медведя с пчелами. Миниатюрного «прокурора тайги», который очень пытался выглядеть грозным, весело уделали доской по голове под хит Эдит Пиаф. Тот самый, про «ни о чем не скорблю»...

У реквизитора немного забот: здесь большой улов рыбы символизирует изображение на бумаге, счастье дружной династии - вся труппа, на мгновение уютно собравшаяся в кучу, как на семейном фото, веселый праздник в деревне - брызги конфетти на пустой черной сцен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скромность выразительных средств присуща «самодеятелям» по чисто бюджетны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н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видится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приемом, признаком формирующегося авторского стиля. Этот театр условен по

максимуму, потому что кредит доверия к зрителю и его воображению огромен.

«Это - настоящий театр, потому что артисты верят в то, что делают. И очень хорошо, что на сцене ничего лишнего, истории излагаются просто, а трогают до глубины души», - заметила ведущий мастер сцены театра кукол Марина Смирнова.

А ведь изначально не было умысла на долгую дистанцию. Лабораторный проект «Нивхгу» на основе нивх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родился по заказу ОЦНТ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который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ется в августе. Однако одним выступлением обойтись не удалось, постановка Александра Ли завоевала большие симпатии, и творческая команда вошла во вкус. За год «Нивхгу» в разных аудиториях показали 13 раз, на Сахалине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И большие гастроли продолжатся. В рамках долгосроч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и-форума "Россия" на ВДНХ «Нивхгу» представят в ноябре, в апре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 «Поводырное небо». А в январе коллектив А. Ли станет участником культурной програм-

мы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ярмарке «Сокровища Севера».

В слове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ь» слышится негативный оттенок, и тому есть основания. Предпочту иное - любительский театр, от хорошего слова «любить»: сцену, людей, жизнь. Режиссер в отношении своих предпочитает иное определение: артисты без профи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у них есть лидер, и название себе придумали - «Театр Ли». Понимай как хочешь - то ли коллектив, созданный Александром Ли, то ли речь о сомнениях, как спутнике вечн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поиска, защите от самоуспокоенности.

Похоже, у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началась и раскручивается собственная интересная театральная история. И ее шаги, уровень труппы Александра Ли дают осторожную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самодеятельный театр будет не только способом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сахалинцев, но и выйдет на новый качественный уровень, возьмет реванш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восприятии, как в прежние времена. Когда театр делали не только с любовью, но и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мастерством.

**Ирина ЦОЙ**

**Фото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 Десятки сахалинцев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отметил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наградам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четырём десяткам 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е внес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поддержку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защищающих рубежи страны, и их семей. Также в ход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супругам из Сербии, которы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на Сахалине, вручили российские паспорта.

— Мы отмечаем больш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раздник —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Считаю важным отметить в этот день заслуги людей, которые так или иначе имеют отношение к событиям, происходящим на фронт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тмечена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за укрепление содружества с нашей армией и сегодня мы награждаем тех, кто внес в это свой вклад. Вы трудитесь в разных отраслях —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образовании, культур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е,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Занимаетесь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Поддерживаете наших защитников Родины и их семьи. Все это очень ценно. Ведь труд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складывается в общую копилку достижений.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эту работу поддерживает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н не раз отмечал успех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решении самых значимых вопросов. И я рассчитываю, что мы продолжим сплоченно и добросовестно трудиться на благо области и земляков, — обратился к собравшимс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15 человек. Это сахалинцы, которые трудятся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КХ,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Еще 26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и также работают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Всех получивших награды объединяет помощь защитникам рубежей страны и их семьям. Среди награжденных — врачи и медсестры, социальные координаторы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члены «Комитета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ециалисты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работники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арт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Особенным этот день стал для музыкантов из Сербии. Игор Ивкович четвертый год обучает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гре на баяне и аккордеоне в Анивской школе искусств, молодой мужчина возглавляет отделение народ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В этом году он признан лучши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среди всех ДШ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месте с супругой и коллегой Иованой Димитриевич, которая играет на флейте и тоже преподаёт юным анивчанам, Игорь выступает дуэтом. Сегодня сбылась одна из их давних мечт.

—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магистратуры в Белгород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нституте искусств и культуры мы приехали на Сахалин. Спустя какое-то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на острове появилось желание остаться здесь надолго, ну и большой мечтой было желание построить дом и получить гражданство. Паспорта уже в руках, поэтому часть пути пройдена, остальное впереди, — поделился Игор.

###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завершился большой этап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юго-западного серпант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склонах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завершились работы по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ю юго-западного серпантина. Теперь трасса буд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больше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для тренировок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так и любите-

лей физкультуры в бесснежное время года.

— После масштабног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мы открываем юго-западный серпантин горы Большевик. А это значит, что «Горный воздух» станет еще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 для отдыха и спорта. На прошедшем форуме «Россия — спортивная держава»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создать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массового спорта и вовлечь в него к 2030 году 70 процентов россиян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и групп здоровья. Мы очень уверенно идем по этому пу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гулярно занимаютс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более 63 процентов жителей. Все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у нас есть доступная и современная спортив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Горный воздух» — место особого притяжения. Он популярен как зимой, так и летом. Уверен, что после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я серпантина любителей пеших и велосипедных прогулок станет здесь еще больше, — поздравил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ри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развивается спортив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чтобы еще больше жителей приобщились к здоров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И я горжусь тем, чт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чень спортивный город, ведь физкультурой занимаются более 60 процентов горожан. Хочу пожелать все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и спортивного духа, чтобы спорт стал нормой жизни для горожан, — добави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 Я занимаюсь лыжными гонками, часто катаюсь на велосипеде и бегаю. Сегодня по асфальту здесь еду впервые. Конечно, гораздо комфортнее. А так как я больше все-таки лыжница, летом удобно будет готовиться к сезону на лыжероллерах,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талья Львова.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нной трассы 4,2 километра. Она пролегает от нижней станции спорткомплекса до самой вершины горы Большевик. Как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Подшивалов, отсутствие резких подъемов создаёт стабильную нагрузку как на велосипедиста и лыжероллера, так и на тех, кто, например, предпочитает скандинавскую ходьбу.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 масштабный, но не единственный этап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юго-западного серпантина. В планах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частности вдоль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нной трассы будут появляться точк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й пункт открылся в селе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Восточном начал работу современ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объект. В селе проживают около 400 человек. Раньше пациенты получали медпомощь в приспособленном помещении — в кабинете сельской школы. Новый ФАП размещен в отдельном здании и оборудован по всем современным стандартам.

Программа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нац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воплотилась почти в двух десятках новых медицинских объектов. С 2021 по 2022 годы современные ФАПы и амбулатории появились в 14 селах. В этом году в новые здания переедут еще 4 медпункта.

— Появлен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ФАПа — это забота о жителях села. Пациентам в новом медпункте будет удобно, для медработников имеется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Кроме того, Восточное расположено на центральной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острова.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может понадобиться любому участнику авто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рина Салахутдинова.

Фельдшер Татьяна Димова приехала на Сахалин 11 лет назад из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Все эти годы она работала в Восточном. Медработник уже обустроилась в новом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ом пункте. Подоконники украсил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цветы, которые женщина бережно выращивал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х лет работы.

— Прикипела к Сахалину, здесь решила остаться навсегда. В селе знакома со всеми жителями, стараюсь создать для них теплую атмосферу. Сейчас о нас позаботились — построили новый фельдшерский пункт. Здесь есть все для работы 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заботиться о пациентах, — поделилась Татьяна Димова.

Открытие медпункта стало значимым событием в жизни села. Интерес к нему проявляют не только заболелые. В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 посещение медпункта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ами местной школы. Благодаря проведению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ой работы выпускники школ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ежегодно поступают на обучение по целевым договорам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и колледжи. Кроме Восточного, новые медпункты в этом году должны появиться в Сосновке, Лесогорском и Молодежном.

### На новой газовой котельной в Корсакове устанавливают котлы

Один из котлов для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блочно-модульной газовой котельной мощностью 59 Мегаватт установили в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котельной Корсакова. Новый объект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беспечит поставку тепла для жителей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города.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е ведутся согласно графику. Уже завершён монтаж металлокаркаса вытяжных башен, идут работы по устройству металлического каркаса здания котельной и отгрузке оборудования. Пусконаладк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объекта завершится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едется 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по переходу объектов ЖКХ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Ввод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котельных, работающих на газе, не только обеспечит качественное и бесперебойное теплоснабжение для жителей, но и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т эколог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в населённых пунктах,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Напомним,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еми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в Чапаево, Раздольном, Соловьевке и Озерском, а также трех — в Корсакове. Все он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 сетевом газе.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 топливе работают более 40 котельных. поэтапно угольные котельные выводятся из эксплуатации, их модернизируют для работы на природном газе или строят новые современные, изначально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этого вида топлива.

Особую важность подключения к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у и более экономичному топливу для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жизн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бозна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азификация региона входит в программу «Забор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иницированную главой регио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 результат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мпании Газпро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재외동포기본법, 11월 10일부터 시행

##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 위한 법적 기반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규정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인 '재외동포기본법'(법률 제19402호, 2023. 5. 9. 공포)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세계 각지에 700만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어

려움이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함께 재외동포청 신설을 국정과제로 삼아 이를 달성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췄다.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내용을 포함했으며,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본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 목적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일방적인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호혜적인 동반성장을 달성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거주하거나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간 재외동포의 정의가 각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돼 재외동포정책 대상에 대한 혼란이 있었는데, 기본법상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물론이고 무국적동포를 재외동포의 법률상 정의에 처음으로 포함했다.

###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기본법은 국가가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재외동포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로써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재외동포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뒀다. 그간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을 법률로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는데, 재외동포정책 추진에 있어 부처 간 협력뿐 아니라 민관 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외동포의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과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이는 정책 수요자인 동포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 재외동포를 위한 민원서비스 정책

이 밖에 시행령에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중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등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합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주무부처인 재외동포청은 "이번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이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 외에도 재외동포정책 추진 동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기본법'과 해당법 시행령의 이행을 위해 지난 9월 13일 청 출범 100일을 맞아 7대 분야, 23개 주요 과제, 41개 세부사업별로 그간의 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을 포함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들과 협의해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12월(잠정) 개최 예정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700만 재외동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며, 효율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 2023. 11.12.

## 제22대 [신고·신청] 국회의원 재외선거

###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 2024. 02.10.

###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To vote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voters shall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2023.11.12.~2024.02.10.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2024.02.10. 까지

By 2024.02.10.

####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4.03.27.~04.01.

매일 08:00~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 인터넷(ova.nec.go.kr)

Via Internet website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Report and Register page

ova.nec.go.kr



#### 공관방문·순회접수

Visit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person or file a written application in person with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employee who travels around its jurisdiction

#### 우편·전자우편

By mail or E-mail

※ 해당 공관에 문의

Please contact the relevant Korean Embassy or Consulat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Посетители выставки познакомятся с творчеством советско-русского художника-импрессиониста Арона Буха и армянского советск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художника, графика и плакатиста Семена Аладжалова. Такж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эстампы с оригиналов Пабло Пикассо, Лероя

Нимана, Николаса Крушенника и работ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усского авангарда Александра Родченко и Надежды Ходасевич-Леже. «Центральными экспонатами выставки станут эстампы с оригинальных работ Энди Уорхола — американ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продюсера, дизайнера, писателя, издателя журналов и кинорежиссёров. Особого интереса заслуживает литография, выполненная с оригинала 1980-х «Страсть (Лицом к лицу)» Донны Саммер — американской певицы, исполнявшей композиции в музыкаль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ритм-н-блюз и диско», — рассказали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 Сахалин주 산불진화 소방대에 13대의 드론 공급

Сахалин주 산불진화 소방대에 13대의 드론이 공급됐다. 그 중 5대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산불감시 전문가들은 드론 비행 시 기록된 온도도의 이상현상을 감지할 수 있을 거라고 사할린주 산림 및 수렵경제청이 전했다. 이에 티모브스코예, 아니와, 돌린스크, 마카로브 지역 산불 소방대의 전문가들이 일정 시간 드론 조종을 훈련시키고,

주 디지털 전환센터의 교관은 이들에게 새로운 장비 운용의 원리를 가르쳐주었다.

## 13 드론을 поступили в распоряжение лесных пожарны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азу 13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поступили в распоряжение лесных пожарны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ять дронов оснащены тепловизорами. С их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исты смогут обнаруживать температурные аномалии, записанные во время полета,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выки управления беспилотниками уже отработ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лесопожар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Тымов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и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Принципы управления новой техникой им преподавал

## 180만 루블리 상당의 연어 알 40박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이 훔쳐

사할린 경찰이 생선 가공공장에서 연어 알이 들어있는 40개의 통을 훔친 용의자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냉장 트럭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연어 알이 든 통을 훔쳐 판매하려고 했다고 사할린주 러시아 내무국이 밝혔다.

피의자들은 밤에 생선가공공장에 접근해 눈치채지 못하도록 구역에 침입한 다음 냉장고의 문을 부수고 연어 알이 든 통들을 차에 옮겨 달아났다. 이후 그들은 지인에게 접근해 인터넷으로 개인광고를 통해 연어 알 판매를 요청했다.이에 경찰의 수사관들이 긴급 수사에 돌입한 결과 소재지를 파악하고, 범행한 사람들을 체포해 구속했다. 도난당한 연어 알 통들은 대부분 회수되었고, 곧 법적 소유주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은 연어 알이 든 31개의 통들을 판매자의 차고에서 발견했고, 나머지는 피의자들의 거주지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이 사건으로 공장이 입은 피해액이 180만 루블리에 달한 가운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 Ж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крали 40 контейнеров с икрой на 1,8 млн рублей

Полиция на Сахалине задержала троих злоумышл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вынесли с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завода 40 контейнеров с красной икрой. Они взломали рефрижератор, забрали деликатес и попытались его продать.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ночью они подъехали в заводу,

незаметно проникли на территорию, загрузили в машину контейнеры и скрылись. Позднее они обратились к знакомому и попросили продать икру через частные объявления в интернете. В результате оперативно-розыск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отрудники уголовного розыска установили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и задержали соучастников. Большая часть похищенного изъята 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передана законному владельцу. 31 куботейнер обнаружен сотрудниками полиции в гараже продавца, остальное изъято по адресам проживания фигурантов. Ущерб составил 1,8 млн рублей. Следователи возбудили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о краже.

##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 추모 사할린 스키 마라톤 2024년 3월에 개최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 추모 제25회 국제 사할린 마라톤을 위해 100여 명의 스키어들이 등록했다. 내년 3월에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릭빈스크, 예카테린부르크, 톨라, 기타 러시아의 다른 도시들에서 스키 마라톤 참가자들이 사할린을 찾아온다.

참가 등록은 2024년 3월 4일까지 행사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마라톤 행사는 3월 8일과 9일에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스키 클래식 및 프리스타일 두 유형으로 나뉘어 출전하며, 대회 총상금은 3백50만 루블리다.

## Сахалинский марафон памят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пройдёт в марте 2024 года

Первая сотня лыжник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ась на 25-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марафон памят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Известно, что в марте будущего года на остров приедут спортсмены из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ладивостока, Рыбинска, Екатеринбурга, Тулы и други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Регистрация участников продлится на сайте мероприятия до 4 марта 2024 года, а сам марафон пройдёт 8 и 9 марта. Спортсменов ждут гонки классическим и свободным стилями. Общий призовой фонд соревнований составит 3,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사할린한국교육원 30주년 맞아 문예콩쿠르 공모

2023년 12월 10일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 되는 날이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를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주민 및 러시아 국민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한국어, 러시아어)
- 공모주제: 한민족의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주제는 '한국교육원이 내 삶에 준 변화', '내 삶에 한국어(한민족문화)어가 심어준 변화', '한국 문화의 매력'
- 공모기간: 2023년 11월 중순까지.
- 발표 및 시상식: 2023년 12월 8일(금)
- 시상: 상장과 상품
- 주최: 새고려신문사, 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또는 vika131065@gmail.com 로 보내주시거나 신문사 사무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콩쿠르조직위원회

## Конкурс эссе на тему «Язык -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овую жизнь!»

В рамках проведения Года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и в честь 30-летия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совместно с Ассоциацией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Р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тему «Язык -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овую жизнь!».

Работы могут быть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Автор должен рассказать читателям о том, как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зменило его жизнь и характер; какую роль в жизни автора сыграл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ка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ивлекают и раскрывают загадку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ноября 2023 г.

Необходимо указать тему эссе,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учащимся),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участник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 адресу: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ил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по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